

“그러나 한국의 책이나 한국을 다룬 책을 읽어본 적은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너무 작은 시골이라 도서관에 가도 한국관련 책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라이프치히 산다는 학생 스테파니 브라이치퍼(24)는 오로지 일본에 대한 관심뿐이다. “한국 주빈국관에 찾은 이유는 일본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고 솔직히 털어놓은 그는 “이번 기회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싶다”는 외교적(?)인 수사는 잊지 않았다. 그러나 Film & Tv관에서 상영한 이명세 감독의 <형사 듀얼리스트>를 보곤, “한국

적인 색과 울동이 조금은 어렵지만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호평을 가하기도 했다.

주빈국은 우리에게 또하나의 과제를 남겨놓았다. 이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책100’의 해외출판을 통해 배웠듯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과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르다. 더이상의 홍보는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올 뿐이다. 그들이 스스로가 한국을 발견하게 해야 한다. 그제 비록 ‘미운’ 한국이더라도, 그들이 발견한 한국을 통해 우리 역시 우리가 몰랐던 한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김민**

INTERVIEW

송영만 (사)대한출판문화협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관 기획단장

‘2년간의 우여곡절끝, 성공리에 치러’ 유치단계부터 유일하게 참여... ‘감회 남달라’



송영만 한국관 기획위원장(사)대한출판문화협회 국제교류 상무이사·효형출판 대표의 감회는 남다르다. 공식적으로 주빈국 유치 단계에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한 유일할 인사이기 때문이다.

“본래 국제교류 담당 상무이사였던 저로선 연초 박맹호 회장 체제로 출협 집행진이 바뀔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른 분이 그 자리에 내정됐다가,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해 결국 제가 다시 맡기로 했죠. 그만큼 ‘주빈국’은 출판계로서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저로선 그런 결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002년. 당시에도 출협 국제교류담당상무였던 송 단장은 최태경 전 부회장과 함께 주빈국을 유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도 규모만큼은 세계 7대 출판국으로 성장했고, 질적으로도 전혀 뒤질 게 없다고 판단했다.

“기왕이면 광복 60주년을 맞아 행사를 치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해 10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가서 당시 조직위원장인 폴커 노이만과, 현 홀거 에링 부위원장을 만나 뜻을 전했습니다. 긴가민가 하더군요.”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회로서는 정체 상태의 도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빈국을 맡을 나라가 필요했지만, 당시만 해도 볼품 없는 한국관만 봐선 선향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한국측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홀거 에링은 다음해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왔다. 그리곤 송영만 단장과 최태경 전 부회장, 오지철 문광

부차관 등이 만났고, 문광부는 정부 차원의 ‘게런티’를 약속했다. 마침내 그해 10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 폴커 노이만과 이정일 전 회장이 만나 조인식을 하게 됐다.

“당시 저는 신문 칼럼을 통해 도서전 주빈국 유치소식을 일반에게 알렸죠. 단지 출판계만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이란 국가 브랜드를 알리는 좋은 기회니 만큼 문화계와 출판계가 ‘올인’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한국의책100’ 선정 기준을 둔 공정성 사비, ‘주인공’인 출판계가 빠진 문화계 중심의 행사에 대한 비판 등이 속출했다. 언론과 출판계의 전폭적인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행사에 적극적이었던 이창동 장관이 물러나고, 이 장관이 ‘삼고초려’한 이강숙 위원장까지 사퇴하기도 했다. 언론은 언론대로 집중 포화를 가했다. 주빈국관은 그렇다치고, 한국관 역시 나올 게 없었다. 출판계는 냉소적이었고, 후원금을 요청받은 기업은 각종 사정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박맹호 회장 취임후 출판계 분위기가 달라지긴 했지만, 시종 ‘국예’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런 와중에 하루하루 도서전은 다가오고 있었다. 송 단장은 “그래도 기획단에는 전문가들이 있어 나름대로 노하우를 발휘하며 한국관을 하나하나 완성할 수 있었다”고 돌이켰다. 특히 프로그래머인 출판평론가 표정훈 씨, 문학과지성사 김수영 주간, 출협의 문승현 과장 등에게 공물을 돌렸다.

“서구인들의 뇌리에 한국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잘 만드는 공업국으로 각인돼 있습니다.여러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는 서구인들이 한국을 전혀 다른 나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했다. 다만 이제 겨우 첫발을 뗀 것이라는 송 단장은 “2008년 IPA총회가 서울에서 열릴 때쯤이면 비로소 이번 ‘주빈국’으로 거둔 유무형의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독일·프랑크푸르트=신동섭 기자 | 사진·박신우 기자